

					II-A-1
제목	국문	의약분업 실시 전후 보건지소 이용 변화			
	영문	Changes on health-subcenter visit before and after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rug dispensing			
저자 및 소속	국문	정원석, 유승훈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Won Suk Chung, Seung-Hum Yu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의료이용]	발표자	정원석 [일반회원]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의약분업 실시 대상 보건지소와 예외 보건지소의 환자 이용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하여 의약분업 실시, 예외, 제외 보건지소에 내원한 환자를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둘째, 보건지소 방문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개인 속성 요인, 이용 가능 요인, 의료 필요 요인 등에 따른 내원 환자의 증감 내용을 의약분업 실시, 예외, 제외 보건지소 별로 비교 분석한다.</p> <p>2. 방법</p> <p>의약분업 실시를 전후하여 농촌 지역의 보건지소 이용도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환자들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강원도 평창군 내의 3 개 보건지소(의원과 약국이 있는 의약분업 실시지역, 의원과 약국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원과 약국이 있지만 의약분업에서 제외된 지역)를 대상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의원과 약국이 없는 예외지역은 군청소재지와 인접하고 있으며, 군청소재지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역이다.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2000년 1월과 2월 및 의약분업 실시 이후인 2001년 1월과 2월의 보건지소 환자 내원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p> <p>3. 결과</p> <p>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는 환자수가 65% 감소하였고, 의원 및 약국이 없고 인접지역이 의약분업 실시지역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환자수가 76% 증가하였으며, 의원과 약국이 있는 제외지역의 보건지소를 내원한 환자수는 11% 감소하였다.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평균 투약 일수가 두 배 길어졌고, 다른 지역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본인 부담금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 의약분업 실시지역에서는 환자수가 급감하였는데, 특히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와 본인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환자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의약분업 실시지역으로 가던 환자들이 예외지역 보건지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원과 약국이 있는 제외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실시 전후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다.</p> <p>4. 고찰</p> <p>의약분업 실시 전후한 보건지소 이용도는 보건지소를 이용할 때에 본인이 부담하는</p>					

비용의 다과에 영향을 받았으며, 환자들이 겪게 된 상대적 불편함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에서 측정 가능했던 변수가 제한되어 있어 농촌지역주민 의료이용도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의료 이용 양상 변화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